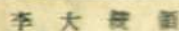


~~프린도후~~ 4:6

韓國人民의言行事도親和에

李大統領의 渡日을 契機로

李統領의 訪見은 報道傳을 미루하여 一說曰 今人言을 들라네 하였고 滿國하신 倭로는 간
단히 昨日 張將軍을 사조조하 惠한 判하고 있는대 우리는 李大統領의 韓日外交問題의 根本
問題가 무엇인지를 물어들이 오를을 알았다.



의主權을 無視하는日本과는 交
渉할수없다 그러나 日本도 獨
斷하지않으니 적당한解決의 態度
를 취할줄안다。

大要를 알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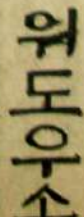
아니 하나 日本은 過去四十年間
우리바다에서 畝도 없이 고기
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韓國
海洋主權線을 宣言하였다고 해
서 七十萬漁業者가 살수없다고
하나 그러면 그들을 살리기 위
하여 韓國漁業者七十萬을 희생
하라는 말인가 日本은 四十年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 25 2623番
編集人 吳 允 台
發行人 吳 允 台
主 筆 田 榮 澤

韓國을 爲하여 많은 努力을 하
는 將 將軍은 韓日間의 外交交
渉의 決결은 우리 의 바라는 바가
아니었으나 日本側이 韓國財産
의 八割에나 達친 財産請求權을
主張하였기 때문에 兩國의 外交交
渉의 會談이 中斷된 것이다. 전
에도 韓國海峽에 日本海軍船
이 一百四十척이 停泊하고
있을 狀에 對하여 그렇게 韓國

在日同胞들中에는 올바른理解와

六二五 事變에 由一드司令官
이 납치되어 간 이후로 韓國
에 救世軍司令官자리가 비어事
業發展에 지장이 많더니 前에
韓國에서 救世軍士官으로 고당
院事業에 노력하는 위도우손



新任韓國救世

위도우손正領

李大統領의 訪日을 보고

國父가 열리는 데 큰 도움이 될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아니한 일이다.

더욱이 우리 大統領의 노련한 交際와 人格의 偉力에 吉田首相과 岡崎外相等 日本側에서 는 오직 敬服할만이 있다는 것은 한때에 그렇게 좋지 못한 言辭를 풍하는 都內各新聞紙의 태도를 보아서도 알 수 있다.

昨日新聞의 社說에 『過去一年間에 걸쳐서 停戰되었던 韓日交섭이 이 李·吉田會談을 계기로 다시 和道에 오르게 된 것은 진실로 기쁜 일이다』고 하였다.

同紙 社說에 다시 양국간에 대가로 약한 여러가지問題에 대

하녀는 각각理由가 있으므로
一舉에 解決하기를 마라는
兩國의 國交開始는 쉽게 안될
이니 피차에 과거의 感情을
떠나 大槩의 見地에 서서 基本
的 條約을 締結해가지고 서로
外交官을 교환한후에 문제를
하나씩 解決하는것이 韓日親善
의 精神이라고 하였다. 比較的
言論이 正當한 同紙의 論調도
아직 過去의 自己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自認할만한 너그러움
은 보이지 아니하나 그네들의
内心에는 分明히 자기네들이
양보할 用意가 있는것같은 卒
그야말로 韓日間의問題는 하나
씩 하나씩 解決이 될 서방이
보인다고 할수있다.

正領赴任

할 行爲는 停止하라 하였다.

東部독일 푸로레스단트 (新敎)

韓國과 日本

日本

면 한국과 일본사이에서 일어난
본문은 제는 확실한 제이차적
(第二次的)인 것이다. 그런 본
생문제의 첫째는 그동안 평판
이 나쁜 한국에 있는 일본인파
한 반란의 요구니 이것은 일
본이 오래 한국의 지배자요
제척자 이었다는 이유로 한국
에 있는 일본의 재산을 반환하
달라" 요구하는 한국의 제발원
부(富)의 약(弱)과 페렌트에 이
치는 것이요 사실상 일본이 한
국에 패권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에 대한 패권을
미하는 것이다 물자는 인적

나 트라볼이 생기는 어업권은
제다 이문제는 지금 무기 및
수입과 공산당 밀입국을 방지
하는 문제와 결여어 있는 것이
다 일본파 반한국의 강화조약
으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한국에 대한 일점권
리와 요구를 포기하였다.

현재의 정세에 있어서 한일
양국을 발위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유역자령관이 무나라의
조정자(調停者)가 되는 것은
가장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 요시다(李吉田)의 회담
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 "탈락"
대상의 본의도 여기에 있으므로
로 탈락대상이 조정자로 성문
할것을 믿을수도 있는 것이다

다니 매우 술은 일입니다.
한국에 우리 救世軍 기관이
많이 파괴된 모양인데 남은 것
을 수리해가지고 사업을 착수
하렵니다. 몸져 서둘러가서 형
편을 보고 준비한 다음에 가
족을 다려갈려니다. 최근 한국
형편에 대해서는 백지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주시를
바랍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도우손씨는 한국을
위험지대로 알아서 가려고 하
는 사람이 없는데 용감하게 자
원해서 임명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전암한국의 그리
스도의 사도로 오는 그에게
대하는바가 크다.

一九五三年度에도 四六〇〇
〇一五七달라 一貫一億六千五百
六十萬圓一을 원조받았이 決
議되었다. 이것은 日本基督敎團
과關係된 亞細亞에 福音의 會
同기관인 IBC에서 一九五三
年度 日本전도 敎育 社會事業
자금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金額은 昨年度의 四八〇〇
六一六달라에 비하면 조금 減
少되었으나 미국신도들의 日本
전도 關心의 바로메아리로 주
목되는일이다

優秀한宣教師必要

最近日本에서 미국에 도라간
캐롤린神父 리차드 에잇츠氏
는 日本實情報告를 하였는데
基督敎와共產主義를 비교하면서

東獨逸教徒의 逢難

共產治下에 있는 東部獨逸 新
 數本部에 대하여 東部獨逸內務
 장관은 『두옥된자들을 위하여
 祈禱하지말라』고 경고를 하였
 다고 NC通信이 보도한다。
 그 경고문에 의하면 『만약
 푸로레스단트敎會가 共產政府의
 策자들이 세로投우한자들을
 殺하러 나온다면 殺戮한자들은
 殺戮당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받기
 는 아직도 쓰런에 포로 捕虜
 로서 남아있는 數千名의 독일
 人과 일반두옥자와 五十餘名의
 푸로레스단트 俘虜들을 위하여
 기도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俘虜中에 두옥된이들이 있다
 는 것은 東部독일 쓰런전령地區

日本傳道에

『國家主權에 干渉하는 용서 못 할』行爲는 停止하라』하였다.

東部郵日 루로레스단트(新教)의 多大한 價値를 말고 있는

日本教會는 收戰後 米國教會

一億六千五百萬圓

人事

△劉士平正副：後世軍國本
 △韓國明任給時이 半任
 △크스氏：大韓이連合會
 △田委澤：本國旅行歸途
 △田水福：能本教會集會引
 △吳允光：京師、禮儀教會
 △李宗壽：師、福國教會
 △四日大阪教會：半任



서 사년째 중풍이 우리 한지
 도에까지 침략해오지도 어느
 때 만 이년이 넘어서 삼년
 에 외었다 그대 그대 코아
 은 유쾌군은 우리 궁군을
 도아서 저를돌 돌리치고 지
 을 알은 천벽같은 밤이
 을치고 있다

저 무리를 국경 밖으로 몰리쳤
때도 멀리자나할줄 안다 하
나님의 도음으로 끝낸 안으
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러
나 남의 힘이나 하나님
도 의심만 바라지 말고 한국사
람된 우리가 각각 최선의
힘을 다하여 할것이다 안
으로국은 단일과 협력이 있
어야 할것이여늘 국내국외를
물론하고 우리는 너머 무성
의하다 흥건과 평화는 바라
면서 힘은 안쓰는것은 큰모
순이 아닌가 멀리 미국청년
이 와서 죽고 이어나라 일
본의 힘을 바라면서 우리
가 힘을다하지 않는것은 일
마나 부끄러운 일이나
스를인내 친일과 박종근 일
과가 무슨 무정없는 공을
꾸렸는지 인가에 들어와서
세력을잡아 보려고 총본의
사람과 손잡고 책동을 하고
있다는데 이미 동경본부에서
반대성명을 했거니와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는 일본사
람도 어리석고 파라다니는
사람도 어리석다고 하겠다
우리앞에는 정의와 단결이 있
을뿐이다

連續講座

連續講座

新約聖書概論工夫

(1)

모든 聖經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것인데 우리가 聖經을 상고하여 그속에서 영생하는道를 알고 우리가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길을 밝히 알수 있고 남과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수 있는것이다 그같은 쉬운일이 아니다 예수께서도

우르자 하면서 몸소 언저 시작한바 우리가 따라 순창을

그런 믿기쉬한 苦難(十字가)을 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는 聖經을 스사로가 공부하여 믿음의성장에 노력하는 十字가를 저야한것이다.

聖經은 旧約과 新約이 있다 旧約은 예수께서 오시기前 하 나님의 약속인데 三十九卷으로 되었고 新約은 예수께서 오신後의 記錄인데 二十七卷이다.

이제 그 內容을 分解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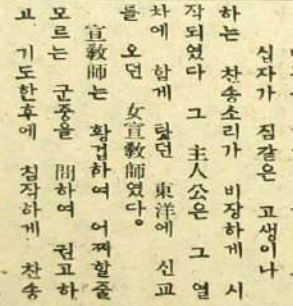
나주를
단트로
7
7
0

이 찬美는 病을 고 惡약한 아
담 夫人이 지었다 그 후 이 찬
美는 數 많은 사람들에 게 영
원한 소망에 관한 용기를 부
려 주었고 신앙 생활의 향상심
을 이 르렸다.

一八八九年 五月三十一日에
美國 芝加哥에 寓居가 있을 때
鐵路가 끊어지고 기차가
되던 순간에 된 일이다.

在日韓國基督教青年會

在日本韓國基督教青年會에서는
東京女子基督教青年會講義堂에서
盛大한 聖筵祝賀音樂會를 開催
하였다. 이와 같은 성대한 축하
회는 日本의 對美戰爭을 이르기
후 처음 열린 것으로 주목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諸류同胞들의 協
찬과 贊助도 기록적이었다.



變化하는 世界情勢에
教會의 預言者使命을
牧會使紙—뒤모매前
매後書 뒤도書

기도에 힘을것을 確信한다。
그럼으로 우리는 世界平和實現을 믿고 一層 福音宣敎에 힘쓰고 聖誕節을 비롯하여 每月定期的(第一週기도會)으

平和聲明

나 할수있는 유일한 世界의 共同體라고 믿기때문에 世界教會의 한 지체로서 우리敎團은 이를 위하여 피차 連絡協力할것을 世界各國敎會에

하고變化하는 世界情勢에
對하여 敎育의 代言者使命을
완수하기爲하여 對處할 方法을
研究하게하며 結果를 公表하
고, 會議하여 敎團으로서의
態度를 밝히고 一致協力を
공고히 하리한다.

十二月八日 日本基督敎團

에언書— 牧會便紙— 뒤모에前書 뒤도書
일반便紙—
히부리書 야고보書 메드
로前書 메드로後書 요한
一書 요한二書 요한三書
유다書

에언書— 요한계시록(제4주)

또「나는 하나님께서는人類
 미워하시지 아니하신다」는 말
 습을 가장 큰 계명같이 생覺한
 다」고하며 自己의 宗教는 유
 대인답게 凱樂의도 아니고 푸
 로메스트도 아니라 科學에 전
 업하며 하나님외 실재를 안는
 라고 말 하였다.

스한야 卽개 스한야
 말나기
 新約 聖經
 一 福音書
 其間 福音 一 마태복음 마가
 복음 누가복음
 第四福音 一 요한복음
 二 歷史 一 使道傳

(三) 敎育의 平和에 對한 努力은
 깊은 神學的의 討論과 合衆政治
 經濟的情勢에 대한 올바른
 認識이 必要하기 때문에 自
 常議委員會의 자문기관으로
 若간名의 特別委員會를 設치

(三) 便紙
 바울便紙—로마 고린도전서
 四大便紙—
 고린도후서 갈나뒤아
 옥中便紙—예배소書 빌립보
 書 골로새書 빌리몬書
 小便紙—예살로니가前書
 에살로니가後書

說教

人生의 무거운 짐

苦難問題

馬太福音十一〇二五—三〇

『제상에 제 고동이 있는가』
 제상에 제 사당의 제단이 있는가
 고 오해와 싸움이 있고 질투
 와 미움이 있는가 제상에 제
 책이 있고 죽음이 있는가 제
 전령이 있는가 이러한 인생의
 고동으로 쓰라림을 당하고 한
 숨과 눈물로 어떻게 비참한
 소리를 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제상에 제 고동이 있는가』
 제상에 제 사당의 제단이 있는가
 고 오해와 싸움이 있고 질투
 와 미움이 있는가 제상에 제
 책이 있고 죽음이 있는가 제
 전령이 있는가 이러한 인생의
 고동으로 쓰라림을 당하고 한
 숨과 눈물로 어떻게 비참한
 소리를 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제상에 제 고동이 있는가』
 제상에 제 사당의 제단이 있는가
 고 오해와 싸움이 있고 질투
 와 미움이 있는가 제상에 제
 책이 있고 죽음이 있는가 제
 전령이 있는가 이러한 인생의
 고동으로 쓰라림을 당하고 한
 숨과 눈물로 어떻게 비참한
 소리를 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校座 教授法

鑑賞과 論議 (2)

魯安理

3. 교사의 정열이 학생을 움직인다. 『정열』이란 파격한 말을 토하거나 화를 쓰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교사가 생각한대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격과 기쁨을 순수히 나타내는 것이다. 자연계에 대하여 아무 주의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알뜰한 구를 한학을 보고 있는 느낌을 받게 할 수 없다.

은 유상으로 인하여 처다한 왕공귀인(王公貴人)이 가진 아첨과 웃는 얼굴로 만져 받 어주머니 저가 하로아춤에 동떨어 든 줄을 알게 되자 후연 이 아모도 돌아보는 자가 없어 졌다 심지어 천천히나 가족과 지도 버리게 되어 마침내 거 리에 방황하게 되었다.

傳道欄 救援의길

한국백성들이여
 고난과 공포와 주검에 온전 란이 왜 우리에게 온중하는가 랍과 과 거적과 우상과 주세 잡 기로 험하여 도라가고 있는 우 리에게 멸망을 주지 않고 지 게로알고 회개케해서 사랑으로 참함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런의 승리 가 나 개인개인이 참진실한 사 람이 되어 하나님을 알고 진리 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어 새사람이 되고 압되는 데에 달린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살

도만으로 혹은 모양을 모사하 여서 학생으로 하여금 주의를 날카롭게 하는 것으로 너그러워 도 있고 좀더 본격적인 시험 혹은 해설을 해 줄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너러본 배 양 나 무었에 있는 줄거리들 본일이 있읍니까?』 이런 간단 한 암시만으로 학생들은 백양 나 무의 앞사귀를 들어서 자제 히 보았다. 그래서 그 평범한 가끔 무시받는 앞사귀에도 말 할 수 없는 미가 있는것을 알 고 깊이 되리에 색여두게 되 었던 것이다. 버리지도 그것을 직접 볼때에 버리의 세계가 가치고 있는 경이를 감상하게 된다. 위대한 그림 같은 작품 을 감상함에 있어서도 참고서 혹은 전문가의 해설이 많은

를 보고 나를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현이 성을 얻으
리라

예수께서 나아가서 무거운
짐을 신자가 실수있는 도리가
무엇이나 그것은 곧 그의 온
유와 겸손이다 그의 온유와
겸손이 영생을 맺어 주리라
우리는 짐을 얻으리라 참된 안식
과 평안과 쉼은 온유와 겸손의
결과이다 세상과 교유가 하나
지 않는 것은 오직 감동과 고
이 있고 온유 겸손이 없는
사람이다 유다 예수의 위대한
것은 신자가 같이 인생의 무
거운 짐을 담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남으로 남으로 피란처를 찾아
가고 있지 않은가 옷깃을 마
고 생각할지이다 과거해방의
은혜로 살길을 주셨지만 부패
-도박에 더럽혀진가 이것이
어찌 지도자들의 파오와 책임이
아니라고 누가 큰소리 할수 있는
가

우리는 크게 반성하자 마음
을 바로잡고 생계를 고쳐서
진정한 참사람이 되는데만이
승리가 있고 살길이 있다는 것
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러번
참으로 애국심이 있는가 나라
를 세우고 통일을 살리려거든
본인이 땅을 차지하여서 이때까
지 가던 길을 도리어 잘못을
고치고 정의의 진리이신 하나
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새
로지를 받으라

가를 아무 감동도 없이 부르
는 일이 없지 않은 것이다. 교사
는 학생들이 찬송가나 기도
에 배하는 지경에 인도되게 하
여야 할 것이다

홍익한 전기(傳記)는 독자
의 목적에 그 주인을 살피
고 동경하여 독자를 매혹케 하
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것
밖에도 인간생활, 사회생활에
움이 있는 귀한 점에 할상
주의하여 학생 인도의 좋은
기회가 되게 할 것을 잊지 말
아야 한다. 물에 빠진 어린이를
건지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
고 뛰어들어간 사건을 통하여
그다음 주일의 공부와 예배에
깊은 의미를 더한 한 교사도
있었다

香氣 哲學者의서름

어떤 철학자가 팔자 다 세
스에게 어떻게 정수를 얻게 하
고 시련을 이길까하는 것을 가
르친 다음날 자기 머리를 잘
안고 고요히 앉아서 정수를
얻을 보고 라세르스는 이상
이 없는 것을 얻었다

이것이 철학의 길이다

대답하는 말이 "내가 가장 사
랑하는 것을 우리의 정수라 할
오 스승은 나의 정수가 정수라
이 죽었다"이다

한국 종교가들이여!
종교가 부패하면 사람이 완
악하여지고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제가 있다는 것
을 다 알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국을 세계에 빛내
어 버린대 현대교회가 얼마나
부패하였기에 이렇게 큰경책이
임하였는가 이것은 종교가 자
신의 경건치 못한 천만가지 죄
악 통속을 바로케 인도하지 못
한 죄악 하나만의 요충대로
삼지 못한 죄악의 값인 줄을 진
심으로 아는가 벌써 두번째 재
제가 임해도 자신이 아직 깨달
지 못했는가. 여러번의 선배동지
천우가 순교의 피로 화해도 여
러번은 진실치 못한 생활을
계속하는가

경고

회개할지이다 깨끗한양심을
가질지이다 이 재생의 기회 하
나님께서 무한의 사랑과 은혜로
주시는 이 기회에 미나리가 승
리의 빛날 때로 동포가 참삶의
생활로 세계에 빛내게 할수 있
는 본기정인 이때인 줄을 알고
하늘로부터 지시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러나서 통속을 건지고
나라를 바로잡아 세우자
○고요히 귀를 기울여 주님의
명령의 음성을 듣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
기 전에 해가 번하야 어두어지고
달이 번하야 피가 되리라 누구
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대로 가야 살까?"
우리의 살길은 상종이 아니
오 도지가 아니요 오직 우리
의 피란처가 되시는 예수께로
가야만 살다 자기의 지금까지

「그런데 선생님의 철학으로
한심을 얻으실것이 아닌가요」
한국

「나도 철학은 어떤데 내가
당한 일이 불가항력적이요 어찌
할수 없는 것을 가르칠뿐이다」
했다

이 말을 듣고 이 철학 선생은
「저를 철학자는 말은 천사
하나 성령을 보물 사탕같이
한다」고 하였다

지은 모든 것 본래하고 시기하고
탐내고 압제하고 속이고 거짓
말하고 음란하고 거역하고 욕
하고 자기들을 앞세우는 모든 죄
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길요 진리로 생명의 예수께
로 가서 새생명을 얻고 영원
한 구원을 얻는 새사상 새양
심 새정신 새인격으로 새사람
이 되어야 한다

이하로의 괴로움에 탄식하지
말고 평안히 사는 길을 찾음
시다 「나의 회개하고 바른
도라와 죄없이 할을 받으
라」 이같이 하면 평안이 페이
날이 주앞으로 말마암아 이르
리라 (319) 하셨다. 그런고로
형제자매여! 지체치 말고 물에
를 믿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자비 사랑속에
드러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괴로움은 문제를 다 해결하
고 금세에는 평안히 삶을 얻
고 내세 영원히 삶을 얻으시
다 이것이 우리의 참평안하
는 길이요 나라가 참살되고 창
홍하는 길이다

極樂世界를 찾는客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天下
를 주고 바꿀수 없다」는 생
명을 자기 스스로 버린 인간들을
國運 深淵機器에서 세계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바에 依하면
(一九五〇年度統計)

國別로 보면 1.아메리카 一
萬六千九百九十三名 2.日本 一
萬六千三百一十一名 3.佛蘭西
六千三百七十六名 4.英國 四
千七百八十八名 5.스페인 一
千五百八十八名 이고 그 자살方法
은 一百六十種이나 된다 하며

自殺年令은 四十九歲에서 七十 歲 男子三對四人에 女子一人
五歲가 최고이고 男女別로 보 男子의 比率가 높다

韓國美術短想

(白色) 加藤

흰색은 색채는 아니나 색채 보인 영상이 지금은 사치조차
다도도 할수있다.白衣民族이라 사치져 버린 결과라고도 생각
할수있다. 그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自己民族을 표현하는
색채의 의의는 희미하게
되어가고 있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 주의를 환기 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런데의 표현하는 의미는
희미하게 되고 있다. 그 모자가 정
하고 平安(和)하고 상충한것을
표현함과 동시에 德에서 이정
과 平安(和)을 호의하게 하거나
머리피지 아니하는 것을 가
진 뜻이다

따라서 그것은 언제나 平和
와 安은한 것으로 상징되고 있
으나 그와 동시에 그 강한 소
원을 가졌을지 白色(흰색) 우
에는 그 무엇이 그려져서 정
결성은 더럽힘을 받고야 마는
것이 원인인지 運命같은 暗示
도 주는듯이 생각된다

그것은 지금 그우에 그 무
엇이 그려져 있는 出發이라고도
할수있고 이미 그려지고 때를

흰색을 줄기는 민족의 性
은 이리케 흰색(白)이 사
의運命을 표현하는것같이 한
은 平安(和)을 바라고 평화
함과 동시에 必然의으로 구
정 激動을 감내하듯이 한다
以上에서 말한바와같이 흰
에 相反되는 무가지 性은
속 正氣(氣)하고 平安(和)
한世界에 살려는 간절한 希望
과 이에 反對되는 머러히려는
激動은 곧과 현실사이에
藝術이 생기고 그중은 理想과
현실의 現實을 연결시키는 線
속해 그民族藝術의 모습이 있
다고도 볼수있는것이다



衰滅되어가는

蘇聯內의 回々敎

『蘇聯의 回々敎徒들은 아부 주속도 받지 않고 回々敎의 規則인 샤리아(一)에 定해놓은 방식에 따라 儀式을 舉行하고 있다. 回々敎徒들이 살고 있는 여러共和國에는 다 그敎堂이 있고 回々敎 理事會에서 任命한 승려와 무예자(新舊時間 通告者)이 있다. 信者들은 그 熱誠의 程度에 따라서 五日間의 日 祈禱會에 參加하기 위하여 敎堂에 가기도 하고 금 禮日 祈禱會나 또는 特別한 祝祭日에 舉行되는 特別한 祈禱會에 參加하기 위하여 敎堂에 가기도 한다. 回々敎徒들은 自 己들의 傳統에 따라서 그 地方에 있는 回々敎 寺의 蘇聯 地圖를 찾아보고 우라자 Ural 라고 부르는 禁食의 달을 지키며 커만 KORM이라고 하는 희생물을 받치는 行事도 그대로 다 지켜나가고 있다.이하略』

엔 아부사이어 著
蘇聯內의 回々敎의 一節
『위에 紹介한 句節은 蘇聯內의 回々敎徒 宗教의 自由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을 出圖詩의 으 로 表現하여 蘇聯國內의 定期 刊行物과 回々敎 各國의 共產 主義宣傳文書에 別개 해서 몇 번이고 되풀이한 것이다. 그리 나 宗教와 回々敎에 關하여는 共產主義의 다른 諸點이나 또는 共產主義 執權者들의 實 地行動은 이와 正反對인 것이다. 蘇聯內의 回々敎의 眞實한 多少 的을 수 있는 材料을 열거 되 고는데 그것은 라톨의 名士이 며 締結의 專門家인 리아 드·아라·샤아(Riad·Sahar)가 피키스탄의 新聞 「여명」 紙 一九五二年七月二十日과 二 十八日 및 八月一日과 三日 各處에 發表한 回々敎의 個人 的 觀察를 基礎로한 四個의 運 轉點 圖文인 것이다.

『이 圖文은 一九五二年五月에 모스크로 派遣된 피키스탄 國 使節團의 一員이었던 回々敎徒가 저술한 것인데 그는 歐米 各地를 巡行한 經歷을 가진 본으로서 回々敎徒의 觀察 是觀의 人인 것이다.

『리아드博士와 그 一行이 제 일 처음으로 머무른 곳은 우즈베크의 수도이며 中央亞細亞에서 回々敎의 一大中心地가 되어있는 타스켄트이었다. 이 타스켄트에 關해서는 序頌에

昨年度日基出版事情

喜悲交叉의 一年

日本出版文化의 昨年度는 外裝內 裝이었다. 一般社會의 변명이 없 음과 아울러 出版物판매상정의 관건도 변다할뿐 購買力은 微 러졌을뿐이다.

이런데 基督敎出版계라한들 海外일수없다. 예전주에는 百餘 곳에 여러가지 出版社가 생겼 으나 最近에는 은교바 敎會수 있는 정도의 소수출판社만 남 았다. 순수한 출판社로써는 新

敎出版社들이라 하여도 과연은 安일것이고 敎文館은 출판도하 나 그쪽은 정리하고 판매에 集中하는 모양이다. 그외에 우 교회측에 明和書院과 三一書店 이 있으나 消微의이다.

敎團과 敎派에 속한것으로는 敎團出版部 요루단社가 至公 社와 聯合하고 루터社 新約社 生 命의言華社도모시미社 小基督회 들에 獨속한 활동을 하고있다

引用한 書籍의 作者인 아부사 이어가 인도月刊(Indo Soviet Journal)이라는 雜誌 一九五一年 十月號第九페이지에 다음과같이 記술하였던 것이다. 즉 『예를 들면 타스켄트와 같은 큰 都 市에는 回々敎의 大敎堂이 있 을뿐 아니라 所謂 敎하린 敎堂까지도 있다』그러나 리아드博士가 본 타스켄트의 事 實은 이와 正反對인것이다. 回々 敎의 圖文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우리는 都市에 아직도 回々敎 敎堂 하나가 남아있으며 金曜日 祈禱會만 열려놓는다는것을 알았다. 우리 는 그 敎堂을 보여달라고 했 을하였으나 結局 許락되지 않 았다.』

『리아드博士가 訪問한 또 다 른 回々敎의 中心地인 가자크 란의 事實도 이와 비슷하다. 리아드博士는 그의 國籍의 論 文中 마지막 論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蘇聯의 憲 法에 依하면 敎徒의 自由가 保障되어 있으나 實스主義는 各學校와 各大學의 必修課目으 로되어있으면서도 宗教敎育은 許容되어 있지 않다는 事實을 確證하였다 말아타는 여러 世紀동안 回々敎의 都市로 되 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단 하나의 敎堂도 찾아볼수가 없다.....』

『리아드博士는 메닌그라드에서 언지 하나만 있는 回々敎 敎 堂을 찾아내었으나 그 敎堂은 當局의 命令으로 閉鎖되어 있 었다. 回々敎徒의 數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詩

과해로다
새날이 오니
기쁨이 넘치네
원이 원충이 러오나니
오오 새빛이로다
구름도 안개로 없이
은 땅은 맑아하리라
몸을 씻고
새옷 갈아 입고
저 상으로 오르리라

祈願

세상을
업드려
내 마음
무슨 일
다 삼고
오직
민족의
이해의
통일을

二

을 받고있다.

昨年度에 出版된것들을 살펴 보면 最大의것은 黑崎氏의 『新 約聖書語句分引(日希之部)』와 塚本氏의 『四福音異同一覽』이 있 는데 이들은 無敎會사람들이나 日本基督敎界에 크나큰 貢獻을 한것이다. 다음은 東京神學大學에서 편찬한 『基督敎講座』全十 卷이 完成되었다는 사실일것이 다. 이책은 分卷으로 되어서 계속 읽어가기便하고 뜻있는者 에게 一般의 體系를 알기 좋은책들이었다. 이책들 出 版한 新敎出版社에서는 四年이 나 두고 편찬하여오던 『聖書新 辭典』을 完成하여 내었다. 이 책은 一般文化人들에게 많은 편리를 주는 小辭典으로 愛用

聖經講解와 註解에 있어서는 敎文館에서 同志社 山崎實氏의 『에스겔書』能野清子氏의 『예살 로니가前後書』松下氏의 『고린도 前書』松村克己氏의 『요한前 書』新敎出版社에서 能野義 孝氏의 『共觀福音書講解』松本 孝夫氏의 『고린도前書』要解가 나왔고 角川書店에서는 말트의 名저 『로마書』가 吉村氏의 번 역으로 前篇이 나왔고 『죽은자 의부활』死人之(고린도前書十 五章講解)가 復活社에서 發行 되었다. 요루단社에서는 가나 1 어의 『基督敎敎理』가 나왔고 新敎出版社에서는 갈릴의 『基督 敎綱領』二卷과 말트의 『敎義 學要綱』이 再版되어 二千五百

中共侵略에 反擊 (2)

中共軍은 外國의 침략자다
만일이 유엔이 참으로 침략자
와 싸운다면 저들을 韓國땅에
서 몰아내야 할것이다 敵을
北쪽으로 쫓는 물아내는데 아
무 나라도 반대할자는 없을것
이다 이제 필요한것은 보다 많은
車隊와武器와軍需物資다 연
합군이 전에 독일과 싸울때저
럼 힘써 싸우면 中共을 치기
는 쉬울것이다. (끝)

神戸市灘區高羽
電話・御影四九二二

東京・神田
錦町一ノ六

キリスト新聞社

振替・東京
一九六〇一六

B 6 判・四八〇頁總ルビ付 定價上製 二六〇圓
並製 一六〇圓 下四〇圓

賀川豐彦 監修
渡瀬主一郎・武藤富男共譯

口語譯新約聖書

增刷出來！

國際基督教大學

教 養 学 部 (四年制)

募集人員 第1年 150名 願書締切 1月31日

入学案内及び願書用紙は金30円と返信切手貼付宛名記入の封筒とを同封請求のこと

大学事務局

東京都三鷹市大沢
電話・ムサシノ3791

東京事務所

東京・中央区銀座・教文館内
電話（京橋）56-6855